

지역 소식통

부안군, 폭염 대비 건강 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

부안군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상담인력 28명이 방문대상 가구방문과 일일 인부전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더위 적응력이 약한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등에게 콜보시, 콜파스액, 부채등을 전달 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고열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폭염대비 건강관리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농어촌지원센터 원예치유교육 진행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생생마을플러스-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개 마을을 선정(150명), 각 마을당 2회차 원예치유교육을 통하여 마을주민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을주민 평생교육은 고품격으로 친체된 마을 주민에게 학습·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 간의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1회차 실내정화 식물 화분 만들기(나의 추억 정원 가꾸기) 2회차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다육 힐링 이야기) 주제로 각 회차별 마을 주민 최대 20명이 참석하여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큰 호응도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키운 반려식물은 8월 중 참여마을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어 예쁘게 꾸민 작품을 선정하여 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름골자연휴양림 조성 '속도'

고창군, 실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연말 착공 예정

고창군이 지역 최초 자연휴양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운곡습지 초입의 아산면 용계리 일원 54ha에 조성된다. 고창군 최초의 자연휴양림이다. 숲속의집, 숲속아영장, 트리하우스, 숲속놀이터, 산책로와 탐방로를 설치해 급증하는 산림휴양 관광 수요



를 책임지겠다는 아산찬 목표를 세웠다.

총사업비는 94억원으로 2025년 말 완공예정이다. 현재 부지매입,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산림청)까지 마무리 됐다. 하반기 전라북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올 연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이 완성되면 운곡탐사르습지, 북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도 만들어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휴양과 레포츠가 가능한 오감만족형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동시에 인근에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북의 산림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친환경 쌀 소비촉진 나서... 이용 업소 차액 지원

정읍시, 원가 6만7100원 친환경 쌀 최대 33% 저렴한 가격 구입 가능

정읍시가 지역 내 친환경쌀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정읍시는 친환경쌀 생산농가 소득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정읍산 친환경 유기농 쌀을 사용하는 지역 내 음식점 및 식품가공업체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특수사업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정읍산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지역 내 음식점, 대형급식소(관공서, 병원, 기업 등), 식품 가공업체다.

음식점과 급식업소는 원 가격이 6만 7100원인 유기농 쌀 한 포(20kg)를 4만 4450원에, 식품가공업체는 한 포당 5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총 사업비 1억 3800만원(전액 시비)을 투입하며 예산이 모두 차감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친환경 쌀 이용 급식 차액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사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유기농 쌀은 정읍시 화교급식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및 구입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공무직노동조합 창립8주년 행사 개최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전북본부 고창군지부(지부장 최선례)가 지난 14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8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한국노총 전북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전북본부 고창군지부(지부장 최선례)가 지난 14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8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본부 권지봉 의장, 이말순 전북본부장, 조합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주년 행사를 축하하고 향후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진행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노동의례, 내·외빈 소개,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공무직 노동조합 창립 8주년을 축하하고,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 하길 당부드린다"며 축하했다.

최선례 지부장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임금 체계,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본 자세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정읍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 교통환경 개선 기대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섰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정읍시,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도가 상호 협의 해 교통사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감소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초산동 시기영 무예다움 삼거리 개선공사 등 총 8개 소로,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 대상지는 △시기영무예다움 삼거리 △북초교 사거리 △서초교 오거리 △제2청사 램프구간 도로선형 △고부면 덕안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고부면 덕안리 선형개선 △소성면 소재지 사거리 △산태인삼회전교



차로 진입부 각각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우려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더욱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군민 우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부안군은 지난 13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 38건 중 2차례 실무심사를 거쳐 6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군민 우선주의 행정을 위해 노력한 우수공무원의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정원식 주무관의 '실질실공장 등록으로 부안형 수소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다!'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원식 주무관의 사례는 산업집적법 상 공장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및 법령해석 요청 질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

터 건의사항 안전 상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어 재무과 이윤미 주무관의 '소유자 사망으로 방치된 빈집이 흉물에서 공공사업부지로 탈바꿈'과 건설교통과 박상욱 주무관의 '동전지구 배수 개선사업 침수 방지대책 수립'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장기 방치 빈집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원과 김현숙 주무관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한 교육청소년과 강미영 주무관, 온라인 판매 직접매케팅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정책과 박중현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인사상 우대조치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호우 정보 속 긴급 현장점검

고창군에 이틀새 최고 125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심덕섭 고창군수가 하천변 등 현장을 찾아 폭우 대응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새벽 2시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누적 강수량(13~14일 오전 6시 기준)은 아산면에 125.5mm 공음면 120.5mm, 무장면 119mm 등 평균 110mm를 기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전 6시 30분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의 참석 직후 고창천 주변 산책로 통제상황을 점검하고, 저지대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차

수막 설치 현장 등을 찾았다.

심 군수는 "고창천의 경우 기본적으로 깊이가 얇은데다, 하천의 폭도 좁아서 유입 수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빠르게 불어나 범람한다"며 "주민들도 진입통제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 군수는 아산면 주전천 현장을 찾았다.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 바로 아래로 물이 세차게 들이치고 있었으며, 주전천은 2020년 여름에도 수해로 지방일부가 유실되며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